

깊이와 새로움으로 승부한다

길벗 출판사의 이종원 사장

새로운 한 세기를 앞두고 신선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출판인들이 많다. 젊은 감각의 기획과 마케팅, 독특한 색깔로 출판시장에 승부를 걸고 있는 이들은 2000년대 출판계에 새 지평도를 그리게 될 미래의 주역이다. 인터뷰 시리즈 ‘21세기의 출판인들’을 통해 미래의 주역들을 만나본다. <편집자>

길벗 출판사의 창립멤버이며 편집장을 거쳐 얼마전 대표를 맡게 된 이종원씨(34)는 서울대 지리학과 81학번이다. 고단했던 80년대를 결코 순탄하지 않게 통과했던 그는 출판 입문의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인간의 문화욕구란 개발하면 할수록 높아진다고 봅니다. 출판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지요. 제대로 된 책만 낸다면 한 사회의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더없이 좋은 것이 출판이라고 판단했지요. ‘책’과의 교류는 일정한 몰입과 독대(獨對)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진지하게 만드는 고유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상품과는 차별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책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지적자산 재창조의 작업

91년에 창립, 올해로 5년째 접어든 길벗 출판사는 취업이나 전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춰보거나 사봤을만한 《유망직업》《유망점포》《유망자격증》 등 이른바 ‘유망’ 시리즈로 유명해진 유망출판사다.

“출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인류의 지적자산을 책으로 번역해내는 재창조의 작업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지적자산 중 굳이 책이라는 형태를 빌려 표현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출판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벼움, 알파함, 무가치함과 대비되는 ‘깊이’가 저희가 담아내고자 하는 책들의 내용을 집약하는 단어라면, 저희가 고집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새로움’입니다. 더 쉽게, 정확하게, 읽고 싶은 마음이 일게 독자를 책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사장은 창립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도 계속 지켜나갈 길벗의 출판원칙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러한 출판 원칙은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책들’ ‘도전과 혁신의 세계 일류기업 총서’ ‘직업의 세계 시리즈’ ‘점포, 사업 시리즈’ ‘한국문학’ ‘컴퓨터’ ‘길벗문예’ 등으로 묶이는 길벗의 도서목록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출간되던 해 2만권이 팔려 나갔고 지금은 4천권 정도는 꾸준히 나가는 스테디셀러 자리를 굳힌 《유망직업》을 통해 시장에서 이미 그 유용성이 검증된 실용서 외에도 길벗에서 펴낸 경제·경영서들은 일본의 처세술 따위를 번역해내는 데 머물러 있었던 종래 이 분야 책의 수준을 우리의 현실진단과 미래의 비전을 아울러 제시할 수 있는 전략서로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통일시대의 어문문제》(고영근) 등 인문과학서도 “있으나 마나가 아닌 꼭 필요한” 책을 내겠다는 길벗의 원칙이 배어 있는 책이다.

이러한 길벗의 책들은 한편으로는 실험적이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평을 얻는다. 그 안정감은 ‘알맹이 있는 내용’ 외에도 책의 성격을 잘 살린 표지 디자인과 깔끔한 색감이며 본문의 체계, 활자의 크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기울여진 편집진의 정성에서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비뚤비뚤 그려진 동그라미 속에 압전히 얹은 ‘길벗’이라는 출판사 이름을 다시 쳐다보게 만드는.

기획력 중시, 필자 개발에도 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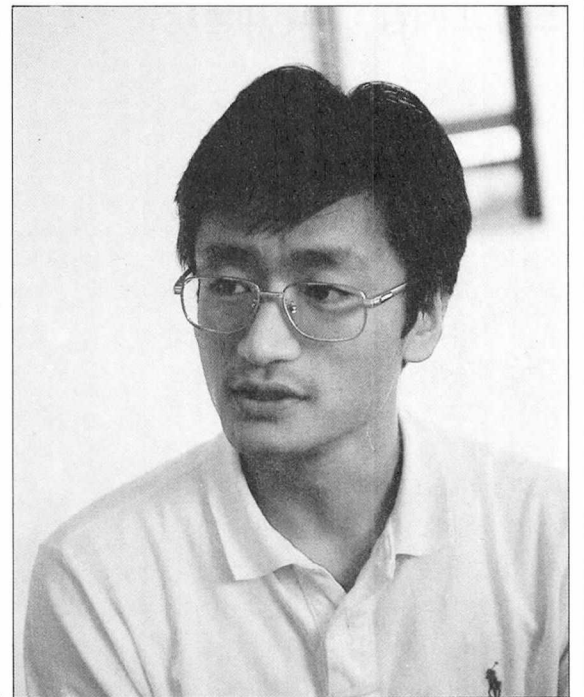
길벗의 도서목록이 지니는 특징의 또 하나는 번역서보다는 국내 필진에 의한, 새로운 주제를 다룬 것이 많다는 점이다.

“외국의 지적자산 중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물론 가져와야겠지요. 그것은 지적자산의 이전작업이지만 국내 필자를 개발하는 일은 국내에 묻혀 있는 지적자산을 창조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창조성이야말로 출판이 지니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통일시대 한반도의 변화를 조목조목 짚어 나간 《통일, 그날 이후》(이경훈 외 지음), 최신 21세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전환기의 사회 경제, 국제질서, 정치, 문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발전모델을 제시한 《21세

“출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적자산을 책으로 번역해내는 재창조의 작업입니다. 그 지적자산 중 책의 형태를 빌려 표현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출판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깊이’와 ‘새로움’의 출판원칙을 지키겠다는 이종원사장.



길벗 출판사에서 펴낸 책들.

기의 프론티어》등 나라정책연구회의 ‘나라총서’ 외에도 세계 일류기업들의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게 살펴 성공요인을 분석한 ‘세계일류기업총서’는 아직 누구도 다루지 못한 주제이며, 연구실이나 기업체 등에 파묻혀 있던 필자들을 발굴, 편집자와 필자가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며 이루어낸 성과들이다.

이들은 모두 출판사의 탄탄한 기획력에 바탕을 둔 것으로, 영세한 신생출판사의 살길은 철저한 기획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종원 사장은 단순업무라 여겨지는 교정작업을 외부에 맡기고 있다. 편집인 본연의 역할인 기획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출판업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치있는 자산은 사람이 아닌가요. 필자와의 관계도 그

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사 다닌다는 말이 자랑이 되도록 수익이 나이지는대로 월급도 팍팍 주고 규모가 좀 커지면 종업원 지주제도 할 생각입니다.”

모두 8명인 길벗의 ‘식구’들은 비슷비슷한 연배여서 특별한 이유없이도 술자리를 곧잘 벌이는데, 이사장도 이 자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 아이디어라는 게 딱딱한 회의 석상에서 나올리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길벗의 분위기는 젊고 밝고 자유롭다.

“한 1년은 그간 해왔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영수업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출판업의 이모저모를 배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오래도록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책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박남정 기자